



빼곡한 근조 리본

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'정치적 고향'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광주·전남 시도민 합동 분향소에 22일 오후 5시까지 6만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가운데 추모객들이 분향소 인근 담장에 근조 리본을 매달아 고인을 추모했다.

# 낮밤 없는 추모 물결..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



**눈물의 조문** 21일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분향소에서 한 여성 조문객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.



### 끝없는 조문 행렬

▲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분향소에 21일 밤 늦게까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



**오열... 통곡...** 있다.

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광주·전남 시도민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오열하고 있다.

사진 = 최현배기자 choi@연합뉴스



### 천주교 사제단 추모

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(오른쪽)·김희중 대주교와 사제단 50여명이 2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식을 거행하고 있다.



### 사랑합니다

▶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주·전남 시도민 합동 분향소를 찾은 한 어린이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글을 남기고 있다.



### 넋 달래는 살풀이춤

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고전무용가 한진희 씨가 살풀이춤을 추며 고인의 넋을 달래고 있다.